

광주시 한해 교통 적자보전 2천억 '눈덩이'

2순환로 290억·도철 626억·공영제 1,156억 시의회 예결위, 일부 '코로나 추경' 취지 어긋나

광주시의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선제적인 버스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의 올해 광주시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통관련 적자보전 예산은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 290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지원 626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재정지원 1,156억 원 등

2,0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초기인 2008년 239억 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15년 529억 원이 됐고 불과 5년만인 2020년에 1,193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재정지원금 1,193억 원을 시내버스 1,044대(예비차 45대 포함)로 나눌 경우 연간 1대당 1억1,427만 원이 지원되고 시민

1인당 연간 8만2,000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수송부담률이 38%였지만, 매년 낮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30% 이하(24.3%)로 떨어졌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이 2023년말, 2구간이 2024년말 완공예정인 시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내버스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된다면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편리한 교통은 시민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교통복지라는 측면이 있지만, 매년 크게 늘어나는 교통적자는 결국 시민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예산은 코로나 추경 편성 취지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는 의회 평가도 나왔다.

의회는 시청 중회의실에 계시된 역대 시장 사진 액자를 이전·설치하는 예산 2,000만 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회의실 리모델링 비 1억 원, 기자재 구매 2억 원 등도 소모적이라고 평가했다.

2020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인 광주 출신 안산의 포토존 설치 사업비 2억 원도 증충적이라고 지적했다.

청사앞 공원에 '소나무 숲터'를 조성하는 예산 1억 원도 시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다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섭 시장의 직접 사업인 광주송정역 관문형 폴리 등은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중복 예산이라고 판단했다.

여성가족진흥화마켓 운영비 1,000만 원도 일회성 행사인데다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이 소모적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황애란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8~29	순천	20~30	광양	20~29
나주	16~29	목포	20~27	여수	22~27

일출 06:11 일몰 18:48
월출 08:12 월몰 20:21

장성	17~29	흑산도	22~26
담양	17~30	구례	18~30
화순	17~29	곡성	17~29
영광	17~29	완도	19~28
함평	17~29	강진	17~29
무안	18~28	장흥	16~28
영암	17~29	해남	16~28
진도	18~28	고흥	18~28
신안	19~28	보성	16~28

목포	만조 03:43 15:58	여수	만조 10:31 22:50
	간조 08:52 21:06		간조 04:12 16:3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17명 사상' 굴착기사·현장소장 첫 재판 과다살수·부실공사 혐의 부인

내달 8일...한솔대표 증인신문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 모씨(47),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 모씨(28)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공사사실을 밝히며 ▲부실한 하부 보강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조치 미흡 등 과실로 인해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은 조씨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공사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강씨 변호인들은 "산업안전 기본법상 현장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

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28세인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철거 공사 원정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지장물 철거 하도급을 맡은 다윈이엔씨가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깊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구경에서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왔으며 지난 6월 4일 현대산업개발 측이 차 4대를 동원해 살수량을 늘리도록 지시했을 당시에도 한솔 측은 처음에 위협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원정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강씨 변호인들은 의견을 조율해 다음 재판에서 공사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리며 한솔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광주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감리차 모씨(59)의 첫 재판에서 합의부 1곳과 단독 재판부 3곳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월 전 이들의 재판이 병합돼 합의부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환준 기자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자 철거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후진국형 참사 막아야"

기자회견서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감춰진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책

임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걸맞게 처벌받아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황망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철저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후진국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정인) 현산은 유가족에게 세월호 유족보다 조금 더 보상해줄 테니 합의하자고 도발해왔다"며 "이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족에 대한 조롱이며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을 향해 "재개발조합의 형성과 운영 과정의 비리를 명백히 수사하고 수사력이 필요하면 특별수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확대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김민빈 기자

광주 서구 QR코드 전자문진 도입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검사 대기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검사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교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문진을 지난 달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문진은 기존에 수기 문진표 작성으로 인한 검사자의 정보 오류를 보완할 수 있고, 검사자는 전자문진 작성 후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자문진을 통한 검사는 ▲서구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메인 화면에 코로나19검사 전자문진표 작성 클릭 ▲문진표 작성 후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해 본인 확인 후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청 홈페이지 외에도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QR코드, url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서구보건소 방문 후 입구에 배너, 현수막, 안내문을 통해서도 전자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며, 직원이 태블릿PC를 이용해 문진할 수 있다.

전자문진표는 작성 후 24시간 이내에 방문해야 하며, 집에서나 차에서도 간편히 작성할 수 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전자문진 도입을 통해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진-검사자의 교차감염을 차단하고 검사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자들은 소독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1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방문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오선우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가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4개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총판·대리점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척문의): 070-4909-00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 총판·대리점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척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